

하이원리조트, 동계시즌권 구매자 대상 객실 특가 운영

하이원리조트는 22/23 동계시즌 시즌패스권 'X4+'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이원 그랜드호텔 메인타워 특가 상품을 운영한다. 2월 28일까지 하이원 그랜드호텔 메인타워 스탠다드 트윈 또는 스탠다드 더블 룸을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수영장 및 사우나 2인권을 포함한 패키지도 있다. 문자로 제공하는 전용 사이트 URL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KT&G, 글로벌 '톱 티어' 기업 도약 선포

"NGP·건기식 키우고 해외시장 적극 공략"

〈차세대 제품〉

3대 핵심사업 통해 육성사업 재투자
5년 간 4조원 투자로 10조 매출 목표
건기식으로 미국·중국 등 공략 나서
자사주 매입…주주환원정책 확대



KT&G가 26일 서울 성수동 상상플래닛에서 'KT&G 미래 비전 선포식'을 열고, 글로벌 '톱 티어'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그룹 목표와 청사진을 공개했다. 백복인 사장(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KT&G 임직원들이 미래 비전 선포식 행사 후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KT&G

KT&G(사장 백복인)가 'KT&G 미래 비전 선포식'을 열고, 글로벌 '톱 티어(Top-Tier)'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그룹 목표와 청사진을 공개했다.

26일 성수동 KT&G 상상플래닛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백복인 사장은 '2027 KT&G 비전'을 공개하고, NGP(Next Generation Products·차세대 제품), 건기식(건강기능식품), 글로벌 CC(궐련담배)를 3대 핵심사업 축으로 한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KT&G는 주력사업에서의 투자를 통한 재원 창출을 바탕으로 육성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의 사업 포트폴리오 방향성을 통해 NGP와 건기식을 회사의 핵심성장사업으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KT&G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규모 투자와 글로벌 시장 확대에 대한 과감한 포부를 밝히며, 성장 잠재력을 지닌 글로벌 톱 티어 기업으로의 도약 의지를 강조했다. 향후 5년간 핵심 사업 분야에 대한 약 4조 원의 성장투자를 기반으로 2027년 10조 원대의 매출을 달성하고, 사업의 질적 성장을 통해 글로벌 사업 매출 비중을 50%, NGP과 건기식 등의 매출 비중을 60%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 목표다.

특히 KT&G는 급성장하는 NGP 사업의 글로벌 확장을 최우선으로 삼고 더욱 고도화된 혁신기술 역량 확보와 글로벌 생산능력 확충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국내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보유한 KGC인삼공사의 건기식 사업을 핵심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해 미국, 중국 중심의 투트랙 해외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를 통해 NGP와 건기식 사업에서 2027년 각각 2조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건기식과 제약산업 간 시너지 기회를 적극 모색해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게 된다.

KG&G가 그룹사 전체를 대상으로 비전을 선포한 것은 2006년 8월 '중장기 비전 선포식' 이후 17년 만이다. KT&G는 당시 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축과 주주환원 계획을 중심으로 '글로벌 초우량기업' 도약의 포부를 선포한 바 있다.

KT&G는 주주,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공개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이날 온라인 기업설명회도 개최했다. 현재 KT&G는 2021년부터 약 2조7500억 원 규모의 3개년 주주환원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올해 주당배당금은 전년대비 200원 인상된 5000원을 지급할 전망이다.

KT&G는 3개년 주주환원 계획에 따라 2023년에 3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6000억 원 규모의 배당금 지급 등 약 9000억 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계획하고 있다. 반기배당도 도입할 예정이다. 2024년 이후에도 주당배당금의 지속적인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면서 보다 확대된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올 하반기에 공개한다.

KT&G 관계자는 "KT&G는 그간 핵심사업의 글로벌 성장 가속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최근 5년간 매년 매출 최고기록을 경신해오고 있다"며, "더 높은 미래성장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회를 빠르게 포착하고 공격적인 투자와 혁신을 통해 글로벌 톱 티어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G는 NGP 사업의 핵심 아이템인 전자담배 릴(lil)의 글로벌 수출 계약을 30일 발표한다. KT&G의 NGP 사업은 매년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으며, 4분기에는 AI기술을 탑재한 디바이스 '릴 에이블'을 출시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해왔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롯데홈쇼핑, 올해 첫 시청자위원회 개최

롯데홈쇼핑이 27일 서울 양평동 본사에서 올해 첫 시청자위원회(사진)를 열고,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를 비롯해 강재원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등 총 10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시청자위원회는 2017년 업계 최초로 발족한 소비자 권익 보호 기구다. 경제단체와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인사로 구성했으며,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방송 편성 및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시청자 입장을 대변하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6기까지 운영한 결과, 고객 오인 표현 개선, 자막 가독성 향상, 방송 품질 개선, 상품 정보 보완 등의 성과를 거뒀다.

김 대표는 "더 나은 롯데홈쇼핑을 위해 진솔한 의견을 내주는 시청자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시청자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고 소중한 의견을 경청해 좋은 상품, 믿을 수 있는 방송을 선보이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대상 '청정원 대학생 봉사단 6기' 모집

대상이 2월 5일까지 '청정원 대학생 봉사단 6기'를 모집한다.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한다. 대학가 영세식당의 환경개선을 통해 건강한 식사를 지원하는 '청춘의 밥' 사업에 참여한다. 또 한부모가정 자녀를 위한 진로멘토링 캠프, 온실가스감축 캠페인 아이디어 발표회 등 대상의 주요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한다. 선발자에게는 직원 멘토링, 우수 활동팀 포상, 사회봉사활동인증관리시스템 실적 인정, 우수 활동자 당사 입사 지원 시 우대 등의 혜택을 준다. 나광주 대상 ESG경영실장은 "청정원 대학생 봉사단은 대학생의 아이디어와 기업의 지원이 결합한 사회공헌활동"이라며 "남다른 열정과 책임감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할 진취적인 대학생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제주항공, 3년4개월 만에 객실승무원 공채



제주항공이 3년4개월 만에 신입 객실승무원을 공개 채용한다. 2월 2일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제주항공이 취항하는 지역(일본, 중국, 러시아, 동남아) 언어특기자는 우대한다. 토익 등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해야 하며 서울과 부산으로 구분한 근무지 간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다.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인성검사, 면접, 신체검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별도의 체력검정 대신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전국 국민체력100 인증센터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체력검정 자료로 활용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국제선 운항편수 회복과 올해 예정된 차세대 항공기 도입에 맞춰 채용을 진행하는 만큼 경영 정상화 기반 재구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롯데免,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이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27일 열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롯데면세점을 제주공항 새 면세점 사업자로 발표했다. 롯데면세점은 3월 1일부터 최대 10년(5+5년) 동안 제주공항 국제선 3층 출국장에 위치한 제주공항점 운영에 나선다.

매장 면적은 544.79㎡로 화장품, 향수, 주류, 패션잡화 등 전 품목을 취급한다. 이로써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과 김포, 김해에 이어 이번에 제주까지 국내 주요 국제공항 4곳에서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됐다. 제주공항 면세점의 매출은 2019년 기준 약 420억 원이다.

김주남(사진)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호주 멜버른공항에 이어 제주공항 면세 사업권까지 확보해 글로벌 리오프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현재 국내서 인천공항점(T2), 김포공항점, 김해공항점 등 공항점 3개와 명동본점, 월드타워점, 부산점, 제주점 등 시내점 4개, 제주항공 기내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맥도날드 '행운버거' 판매량 170만 돌파…기부금 역대 최고 규모

올해 누적 기부금 2억 4000만 원
한국 RMHC 전달…중증환아 도와



론칭 10주년을 맞은 맥도날드 행운버거. 사진제공 | 맥도날드

맥도날드의 연말연시 한정 메뉴인 행운버거가 판매량 170만 개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기부금을 달성했다.

'모두를 위한 행운'을 슬로건으로 2013년 첫 선을 보여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구매 시 100원의 기부금이 적립되는 '착한버거'로 통한다. 특히 올해는 행운버거뿐 아니라 스누피 씰 판매 수익금까지 더해져 누적 기부금이 약 2억4000만 원에 이른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행운버거 골드'와 '행운버거 골드 스페셜' 2종으로 구성했으며, 특유의 길쭉한 번(버거 빵)과 마늘의 풍미가 담긴 갈릭 소스, 마늘과 올리브유로 만든 아이올리 소스의 조합이 특징이다. 쫀득한 패티와 아삭한 양상추로 다양한 식감을 더했다.

기부금의 일부는 국내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 건립 및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RMHC에 전달된다.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는 장기 통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아와 가족이 병원 내에서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회사 측은 "행운버거 1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다양한 활동의 의미에 동감하고 동참해 주신 고객의 힘으로 만든 결과"라며 "새해에도 고객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모두를 위한 행운'이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맥도날드는 '쿼터파운더 치즈 BBQ 베이컨' 버거를 선보였다. 두툼한 100% 순쇠고기 패티와 고소하고 부드러운 치즈 조합을 자랑하는 기존 스테디셀러 '쿼터파운더 치즈'에 맥도날드 특제 BBQ 소스와 베이컨을 더해 더욱 깊은 육즙의 풍미와 감칠맛을 즐길 수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LG, 팝업스토어 '그램 스타일 랩' 운영



LG전자는 내달 6일까지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코자 성수스토어에서 'LG 그램 스타일'을 활용한 팝업 스토어 '그램 스타일 랩'(사진)을 운영한다. 방문객들은 2023년형 LG 그램 신제품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다. LG전자는 인기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협업해 사전 신청 고객에게 LG 그램 스타일을 활용한 맞춤형 의상 추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편집숍으로 조성한 공간에서 유명 스타일리스트 박미경이 추천하는 의상을 직접 입고 LG 그램 스타일을 패션 액세서리처럼 매칭해 색다른 스타일링을 경험할 수 있다. LG 그램 스타일은 그램 제품 가운데 최초로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